

스페인어 담화 관련 정보 구조에 대한 구조적 교육의 필요성

유 은 정

Abstract

You Eunjung. 2012. 6. 30. **An structural approach to the information structure related to the discourse.** *Bilingual Research* 49, 193-218.

This study argues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structure education in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Since information structure is concerned with the form of utterances in relation to communicative needs of speakers and hearers, the appropriate uses of information structure help to achieve effective communication.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structural role of various phenomenon related to discourse and information structure in Spanish. And I propose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recognize structural operations that trigger discourse-related effect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of Spanish, accounting for cross-linguistic variation, in particular in Korean and English. This paper offers dislocation and fronting phenomenon, word order alternations and emphatic polarity items' using in Spanish, which entails the components included in information structure-topic, focus, emphasis, etc. And I suggest that it is useful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analysis and discourse for explaining discourse-related structural operation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 화제(topic), 초점(focus), 강조의 극성(emphatic polarity)

1. 서론

언어를 학습하고 교육하는데 있어 중요한 목표는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사용자가 실제 의사소통에서 원활하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의도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언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순한 문장 구성의 언어 사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어떤 맥락에서 적절하게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는가’, 혹은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보다 세부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언어 교육의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습자들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소위 ‘정보 구조’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현상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구조와 현상은 실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담화의 의미 효과를 표현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언어 현상이 정보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이러한 전략의 작용 원리가 구조적 접근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담화 능력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담화 관련 구조 교육의 필요성

스페인어 교육의 과정에서 보다 완성도 있는 제 2외국어 교육이 되기 위해 담화 능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 구조의 구성 능

력과 연결되어 스페인어의 다양한 현상들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정보의 전달에 있어 어순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담화 관련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메시지의 전달 과정에서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 표현하는 의사소통 교육은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습자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보 구조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현상들을 스페인어 교육에 적절하게 도입하여 학습자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은 모국어인 한국어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도를 담아 언어를 구사하지만 이를 외국어로 표현할 때는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강조한다거나 청자의 관심을 유도한다거나 하는 정보 구조와 관련된 언어 표현을 사실상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한 문장 구조, 예를 들어 ‘주어-동사-목적어(SVO)’의 어순을 벗어나지 못하며, 강조의 표현은 부사나 형용사의 수식어를 사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단순한 문장 구조만으로는 자신이 의도하는 담화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Canale(1983), Bachman(1990), Consejo de Europa(2002)¹⁾는 제 2외국어의 교육과 학습, 평가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요소들 중 하나로 담화 능

1) 담화 능력의 모델을 제시한 «Marco común europeo de referencia para las lenguas»는 담화 능력에는 담화를 구성하고 이끄는 능력, 연관성 있는 문맥으로 문장을 배열하는 능력, 정해진 사회 공동체의 관습에 맞게 텍스트를 구성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담화 능력을 평가하는 네 가지의 기준으로 의사소통의 진행 과정에서 상황에 따른 유연성(flexibility), 단어의 순서에 대한 조작, 주제의 전개, 구어 텍스트(spoken text)·문어 텍스트(written text)에서의 일관성(coherence)과 응집력(cohesion)이다.

력을 포함시켰다.) 언어의 사용에 있어 문장 차원에서 언어를 구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담화 차원에서 언어의 사용을 다루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외국어 교육, 특별히 스페인어의 문법 교육에서는 이러한 담화 차원의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법서에 정보 구조와 관련된 항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문법 교육은 문장 차원의 교육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 2외국어로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문법 교육에서 이러한 정보 구조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게 된 학습자들에게서도 담화 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습자들은 문장의 구조로 교육받은 SVO어순의 문장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담화상에서 이러한 어순이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벗어난 문장 구성은 틀린 구조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담화상의 전략인 정보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언어의 구조적 이해를 통해 교육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접근이 학습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페인어에서 담화상의 의미 효과-화제(topic), 초점(focus), 강조(emphasis) 등을 야기하는 정보 구조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소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능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물론 담화와 언어 사용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보 구조의 모든 유형을 포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
- 2) Canale(1983)은 의사소통 능력을 네 가지 측면으로 분류한다. 문법적/언어적 능력(grammatical/linguistic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이 그것이다.
- 3)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보 구조의 유형은 화용적인 담화 전략과는 다르다는 것을 언급해야만 할 것이다.

담화를 구성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특징적인 현상들을 중심으로 구조적 규칙성을 보이고, 이를 문법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는 점과 화용적인 측면을 구조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고 해석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 특히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그리고 대부분의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제 2외국어로 스페인어보다 먼저 학습하게 되는 영어와 비교하면서 정보 구조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담화상의 의미 효과를 나타내는 전략

3.1. 화제(Topic)와 초점(Focus)을 위한 어순의 변화

담화 상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새롭게 제시되는 정보이면 이를 신정보(rheme)라 하고, 문맥에서 혹은 이전 담화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혹은 주어진 정보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구정보(theme)라고 한다. 이를 정보 구조의 관점에서는 각각 화제와 초점이라고 부른다. 스페인어에서 화제와 초점의 정보 구조는 통사적 구조와 연관되어 있고, 어순과 연계하여 담화 관련 의미 효과를 얻게 된다. 먼저 다음의 대화문을 살펴보자.

- (1) A: ¿Qué hizo José?
B: [TOPIC José] [FOCUS fue a casa].
- (2) A: ¿Quién ha llamado?
B: [TOPIC Ha llamado] [FOCUS Juan].
- (3) A: ¿Quién comió las fresas?
B: [TOPIC Las fresas las comí] [FOCUS yo].
- (4) A: ¿Qué pasó?
B: [FOCUS José fue a casa].

(Zagona 2002: 209; Casielles 2004: 4)

위의 대화문에서 (1)의 경우는 A의 ‘José가 무엇을 했니?’라는 물음에 B가 A가 제시한 ‘José’라는 정보를 먼저 말하고 이어 새로운 정보로서 ‘fue a casa(집에 갔다)’라고 대답했다. (2)의 경우는 A의 ‘누가 전화를 했니?’라는 물음에 B가 이미 주어진 정보인 ‘ha llamado’를 먼저 발화했고 새로운 정보인 ‘Juan’을 그 다음에 발화하여 문미에 새로운 정보가 놓였다. (3)의 경우는 ‘누가 딸기를 먹었니?’라는 물음에 목적어 ‘las fresas’라는 주어진 정보를 먼저 말했고 새로운 정보로서 ‘yo’는 문미에서 발화되었다. (4)와 같이 ‘무슨 일이 벌어졌니?’라는 질문에는 B의 발화 전체가 새로운 정보이며 ‘주어-동사’의 일반적인 문장의 어순으로 발화되었다. 즉, (1)-(4)의 예문을 통해 화제의 요소, 즉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미 주어진 구정보인 경우에는 문두에서 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새롭게 제시되는 신정보인 초점의 요소는 문장의 끝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페인어는 정보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이 문장 내에서 어순의 변화를 보이면서 담화 상의 의미 효과를 야기한다.4) 이는

4) 화제와 초점의 두 요소가 정보 구조를 구성하고 문장에서의 위치와 관련된다. 이는 점은 ‘el hecho de que’ 구문과 법(mode)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적용된다. 스페인어 교재 ‘Método de español para extranjeros-Nivel intermedio’(2009:118)에서 ‘el hecho de que’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i) El hecho de que

-Al principio de la oración: + SUBJUNTIVO:

El hecho de que haya aceptado no significa que le guste el trabajo.

-En otros casos: + INDICATIVO o SUBJUNTIVO:

No debes creer que le gusta ese trabajo por el hecho de que lo ha/haya aceptado.

‘el hecho de que’의 표현이 사용되는 위치가 법의 사용에 영향을 주고 문두에서 사용될 때 접속법이 적합한 경우는, 정보 구조의 관점에서 화제의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이다.

(ii) a. El hecho de que nadie nos escriba me entristece.

b. Conviene destacar el hecho de que algunos países no son revolucionarios.

(Borrego et al. 1989: 107, 108)

즉 화자와 청자 간에 이미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문두에서 발화하는 화제 구

영어와는 구별되는 스페인어의 특징적 현상이다.

스페인어는 다음과 같이 주어와 아닌 다양한 문장 요소들이 문두로 이동하여 이미 알고 있거나 전제되어있는 정보를 강조하는 화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

- (5) a. Ayer presentó María su renuncia.
 b. En este bar escribió Max su primera novela.
 c. De la conferencia no he oído nada.
 d. Listo no lo parece.
 e. A todos no los he visto todavía.
 f. A su madre le regaló María un libro.
 g. Que fumas lo sabemos todos.

(Zubizarreta 1998: 101, 110; Casielles 2004: 26)

위의 예문 (5)에서 각각 부사(구) ‘ayer’, ‘en este bar’, 전치사구 ‘de la conferencia’, 형용사 ‘listo’, 직접목적어 ‘a todos’, 간접목적어 ‘a su madre’, 관계절 ‘que fumas’ 등이 문두로 이동하여 화제의 요소로서 담화상에서 강조된 의미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영어는 지시적 명사구 (referential nominal phrase)가 아닌 요소들은 문두로 이동할 수 없다.

- (6) a. *Clever he doesn't seem it.
 b. *Everybody I haven't seen them yet
 c. *That you smoke we are know it.

(Casielles 2004: 74)

문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실제 벌어진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ia)와 같은 경우는 발화자의 판단이나 감정을 내포하여 묘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될 때 접속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iib)는 문장 내에서 사용되어 종속절의 내용을 새로운 내용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직설법이 사용된다.

스페인어 (5d, e, g)와 동일한 의미의 영어 예문 (6a, b, c)는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영어는 다음 (7)과 같이 지시적 명사구의 경우만 문두로 이동할 수 있다.

- (7) a. John, I saw him yesterday.
- b. Julia I couldn't reach.
- c. Thelma, Mary will invite.

(Casielles 2004: 72; Haegeman & Guéron 1999: 516)

그러나 이러한 화제 구문 역시 스페인어와 동일하지는 않다. 영어의 경우는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 내의 요소가 문두에서 발화되고 있지만, (7a)와 같은 경우는 ‘John’과 동일한 요소인 ‘him’이 ‘John’과는 서로 통사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7b, c)는 문장 내에서 이동하였지만 문장의 어순에는 변화가 없고, 문장 내에 이동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동반하지 않는다. 반면에 스페인어의 경우는 화제 구문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8) a. Juan, lo vimos a él en la fiesta.
- b.*A Juan, lo vimos a él en la fiesta.
- c. A Juan lo vi ayer.
- d. La manzana la comió Juan.

(Zagona 2002: 221; Zubizarreta 1998: 136; Casielles 2004: 73)

스페인어는 화제의 요소가 문두에서 발화될 때, 두 가지 형식이 가능하다.⁵⁾ 먼저 영어의 (7a)와 같은 형식의 이동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8a)

5) 통사적으로는 비강세형 대명사(atonic pronoun)를 동반하지 않는 화제 요소의 문두 도출을 ‘좌측 전이(left dislocation, 이하 LD)’ 혹은 ‘Hanging Topic(이하 HT)’이라고 부르고, 비강세형 대명사를 동반하는 문두로의 이동을 ‘접어 좌

의 경우는, 화제 요소 ‘Juan’과 동일한 지시 대상인 ‘a él’은 전혀 통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문장과는 별개로 문두에서 화제 요소로 도출된 구문이다. 이와 같은 구문에서는 (8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목적어가 사람인 경우 첨가되는 전치사 ‘a’가 문두에서 화제의 요소와 함께 사용되면 비문이 된다. 이러한 구문은 ‘En cuanto a Juan, lo vimos en la fiesta.’의 의미를 표현하며 담화상에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담화나 대화의 주제를 도입하거나 집중하게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⁶⁾ 반면에 스페인어 좌측 전이 구문인 (8c, d)의 경우에는 영어의 (7b)와 유사한 형식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많은 차이가 있다. 스페인어의 경우에는 반드시 문두로 화제 이

측 전이(clitic left dislocation, 이하 CLLD)’라고 부른다.

(i) a. Juan, no me acuerdo de él.

b. *De Juan, no me acuerdo de él.

(ii) a. De Juan, no me acuerdo.

b. En Juan, no es posible confiar (*en él).

b. A María, no la vi nunca (*a ese chica) tan enfadada.

(Zagona 2002: 221, 222)

(i)은 LD구문으로 화제 요소와 동지사구(coreferential phrase)가 문장 내에 다시 도출되어 격(case)을 받고 통사적 기능을 하는 요소로 문장을 구성해야 하는 반면, (ii)의 CLLD구문은 문두로 이동한 요소가 문장 내에서 이동한 요소로 문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어가 아닌 형태로 문장 내에서 다시 그 요소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6) 이러한 HT구문은 ‘en cuanto a, con respecto a, por lo que respecta a, hablando de’ 등의 표현에 의해 이끌어지면서 문두에서 화제로 표현될 수 있고, 이러한 표현 없이 (8a)와 같이 명사만으로 이러한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다. 문두에서 발화되는 요소는 명사로서 문장 내에서의 기능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ib, d)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 내에서 동반되는 전치사와 함께 표현하지 않는다.

(i) a. Hablando de la mesa, recuerdo ahora que dejé la carta allí.

b. *Hablando de en la mesa, recuerdo ahora que dejé la carta allí.

c. Pepe, lo que pasa es que no te puedes fiar de él.

d. *De Pepe, lo que pasa es que no te puedes fiar de él.

(Bosque & Gutiérrez-Rexach 2009: 685)

동한 요소에 해당하는 목적대명사를 문장 내에 동반해야만 하며, 문장은 동사-주어로의 어순으로 도치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된 예문 (5d, e, f, g)가 모두 이에 해당하는 구문들이다.⁷⁾ (5d, g)와 같이 형용사나 절이 문두로 이동하여도 비강세형 대명사 'lo'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 즉, 영어의 경우는 지시적 명사만이 문두로 이동할 수 있지만, 스페인어의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요소들이 문두에서 화제 요소로 발화되는 것이 허가된다. 또한 특별히 스페인어에는 CLLD구문이 존재하여 영어의 화제 구문의 구성과는 서로 구별된다.

다음은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는 초점 요소를 표현하는 담화 전략이다. 스페인어에서는 담화상의 초점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제자리에서 강조의 억양을 주어 표현하는 방법, (9)와 같이 문미에서 발화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10)과 같이 문두로 그 요소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다.

(9) A: ¿Quiénes se fueron?

B: [TOPIC Se fueron] [FOCUS los niños].⁸⁾ (Casielles 2004: 149)

7) 문장의 화제 요소가 문두인 왼쪽으로 이동하는 구문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우측 전이(right dislocation) 구문도 가능하다. 좌측 전이와 마찬가지로 이동한 요소에 해당하는 비강세형 대명사를 함께 사용한다.

(i) a. Se la di a Pepito, la pelota.

b.*Di a Pepito, la pelota. (Bosque & Gutiérrez-Rexach 2009: 688)

8) Zubizarreta(1998)는 이동이 없이 제자리에 있는 초점의 요소에게는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강조의 강세(emphatic stress)가 주어지고, (8b)와 같이 주어-동사의 어순이 도치되어 후치된 주어에게 초점의 자질 [+FOCUS]가 주어진다면 문장의 핵심 강세(Nuclear stress)가 초점 요소에게 주어진다고 보았다.

(i) Nuclear Stress Rule

The most prominent syllable of the rightmost constituent in a phrase P is the most prominent syllable of P.

- (10) a. En PRIMAVERA visitó Juan Leningrado.
 b.*En PRIMAVERA Juan visitó Leningrado.
 c. LAS ACELGAS detesta María.
 d.*LAS ACELGAS las detesta María.
 e. Esos ZAPATOS no se (*los) pone en verano.
 f. Esos zapatos no se *(los) pone en verano.⁹⁾

(Hernanz & Brucart 1987: 94, 95; Zubizarreta 1998: 218)

그러나 초점 이동은 앞서 살펴본 화제 요소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어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의미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화제 요소의 이동과는 달리, 초점 이동에서는 문두로 이동하는 초점 요소에 해당하는 대명사는 문장 내에 동반하지 않는다. (10a)에서는 ‘En PRIMAVERA’가 초점 이동한 구문으로, 이어지는 문장의 어순이 동사-주어로 도치되어야 정문이다. 그리고 (10c, d)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점 이동한 요소는 해당 대명사를 문장 내에 동반하면 비문이 된다. (10e)에서 초점 이동한 ‘esos ZAPATOS’는 문장 내에 목적대명사를 동반하지 않아야 정문인 반면, (10f)와 같은 화제 구문에서는 화제 이동한 요소의 목적대명사를 반드시 문장 내에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화제 구문과 초점 구문은 서로 구별된다. 이러한 초점 이동 현상은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어는 초점 요소를 위해 문장의 어순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대로 제자리에서 초점 요소에 강세를 주어 발음할 뿐이다.¹⁰⁾

9) 문두로 초점 이동한 요소는 대문자로 표기하여 화제의 요소와 구별하였다.

10) 영어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초점 요소를 문두에서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문장 내의 요소의 이동이 아닌 문장 밖에서 발화된 요소로서 문장의 정보와 분리되어 있다고 본다.

(i) I can't believe this! The boss going crazy!

BROCCOLI, he wants now.

(Casielles 2004: 156)

(11) a. A: Who did John hit?

B: He hit HIMSELF.

b. A: Who went to school?

B: THE CHILDREN went to school.

(Casielles 2004: 139, 149)

영어는 초점과 화제를 모두 억양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스페인어는 화제의 요소를 억양으로 구별하지 않고 반드시 통사적인 작용을 통해 구조적으로 구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화제와 초점 요소가 스페인어에서는 하나의 문장 내에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화제는 하나 이상의 요소가 문두에 나오는 것이 가능하지만 초점 요소는 문장 내에 하나만 나올 수 있다.

(12) a. José prometió que en agosto, para descansar, iremos a la playa.

b. A Pedro, ese libro no se lo dio nadie.¹¹⁾

c.*A PEDRO UNA CARTA escribió María.

d.*EN PRIMAVERA JUAN visitó Leningrado.

e. A Juan, UNA BECA le han concedido.

f. Al jefe, BRÉCOL, le compraron sus empleados.

g.*BRÉCOL, al jefe le compraron sus empleados.

(Zagona 2002: 217, 226; Casielles 2004: 176;

Fernández Lagunilla & Anula 1995: 304)

(12a, b)를 통해, 화제의 요소가 문두에 한 개 이상 나타날 수 있음을

11) CLLD구문에서 여러 요소가 문두에서 나타날 때, ‘직접목적어-간접목적어’, ‘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의 어순으로도 도출이 가능하다.

(i) a. El regalo a mi madre no se lo he dado todavía.

b. A mi madre el regalo no se lo he dado todavía.

(Casielles 2004: 84)

알 수 있다. 그러나 초점 요소는 한 문장에 하나만 사용될 수 있으며 (12c, d)와 같이 두 개의 초점 요소가 도출되면 비문이 된다. (12e, f)에서는 화제와 초점이 문두로 함께 이동하였고 한 문장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이 문법적이다. 그런데 이때 문두에서 화제와 초점, 두 요소가 함께 발화될 때 이 두 요소 사이에는 어순이 정해져 있으며, ‘화제-초점’의 어순으로 발화된다. 따라서 초점이 먼저 나타난 (12g)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럼 이러한 화제의 요소가 평서문이 아닌 의문문이나 감탄문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어순으로 발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의문문에서 화제의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 (13) a. A María, ¿cuándo la invitarás?
 b.*¿Cuándo, a María, la invitarás?
 c. El regalo, ¿quién lo tiene?
 d.*¿Quién, el regalo, lo tiene?

(Zubizarreta 1998: 106; Casielles 2004: 82)

(13a,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문문에서는 화제의 요소가 의문문을 벗어나 의문사의 앞에서 발화된다. 의문문 내에서 화제 요소가 발화되는 것은 (13b, d)에서와 같이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감탄문의 경우를 살펴보자.

- (14) a. ¡Qué interesante, a Marta, le es este libro!
 b.*A Marta, ¡qué interesante le es este libro!
 c. ¡Cómo, a mi hermano, lo ha ayudado!
 d.*A mi hermano, ¡cómo lo ha ayudado!
 e. ¡Quién, a Juan, lo ha invitado!
 f.*A Juan, ¡quién lo ha invitado!

(14b, d, f)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탄문에서는 의문문과 달리 감탄사의 앞에 화제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모두 비문이다. 감탄문 내에서 화제의 요소가 발화되어야 하며, 그 위치는 감탄사의 뒤이다.

위의 예들을 통해 담화상의 의미 효과를 나타내는 정보 구조의 중요한 두 요소, 화제와 초점이 문장 내에서 발화될 때, 문장 내에서 정해진 위계를 통해 발화되고 있으며 두 요소가 각각 다른 도출의 구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페인어는 영어와는 달리, 화제와 초점의 효과를 위해 문장 요소의 이동이라는 통사적 운용을 적용하여 담화 관련 의미 효과를 나타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자유롭게 어순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의 구조는 엄격하게 정해진 어순 규칙을 통해서 의미 효과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1. 진성 초점(Verum focus) 구문

앞서 살펴본 화제와 초점 이동과 유사하지만 이들 이동과는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좌측 전이 구문으로 화제와 초점이 혼합된 특성을 나타내는 진성 초점 구문을 살펴보자.

(15) a. Nada (*lo) tengo que añadir a lo que ya dije en su día.

b. Algo (*lo) debe saber.

c. Lo mismo (*lo) digo (yo).

d. Eso (*lo) creía ella.¹²⁾ (Leonetti & Escandell-Vidal 2008: 156)

12) ‘eso’가 문두로 이동하여 비강세형 대명사 ‘lo’를 동반하는 ‘Eso lo creía ella.’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CLLD구문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화제 구문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그것과 관련하여, 그녀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의미해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15d)는 CLLD구문과는 구별되는 구문으로 비강세형 대명사 ‘lo’를 동반하지 않는 구문으로 제시된 예문이다.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nada’, ‘algo’, ‘lo mismo’, ‘eso’가 문두로 이동하였으며 이동한 요소에 해당하는 중성 대명사 ‘lo’가 문장 내에 사용되면 비문이다. 이동한 요소의 비강세형 대명사가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초점이동과 유사하고, 문두에서 강조의 강세(emphatic stress)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CLLD구문과 유사하다. 그리고 초점, 화제 이동 구문과 마찬가지로 동사-주어의 어순으로 도치된다. 부정대명사(indefinite pronoun), 지시사(demonstratives) 등이 문두에 사용되어 강조의 의미효과를 얻게 되는 인상(fronting) 구문이다. 그러나 초점이나 화제구문과는 달리, 부정대명사는 의미상 이미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나타내는 화제구문을 형성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어떤 것과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대조적 초점이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순수한 초점 구문이 될 수도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¹³⁾ 그리고 담화상에서 새로운 정보를 주는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는 구문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15c)와 같은 예문의 경우, 앞서 언급된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5)와 같은 구문은 문장의 진위(truth value)에 대한 초점구문으로 진성 초점 인상(Verum Focus Fronting) 구문이라고 부른다.¹⁴⁾ 이러한 구문은 초점이 문장의 진

13) 다음 예문 (ia)는 화제 구문으로 해석되는 구조이며, (ib)는 초점 구문으로 해석되는 구조이다. 엄밀하게, 진성 초점 구문은 의미상 CLLD와 (대조적) 초점 구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i) a. *En cuanto a nada, (lo) tengo que añadir.
 b. *Nada tengo que añadir, (*no algo).
 c. -¿Qué me puedes decir?
 -#{Nada/eso} te puedo decir.

(Leonetti & Escandell-Vidal 2008: 160-162)

14) 이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 학자들마다 다양한데 Zubizarreta(1998)는 강조적 인상(emphatic fronting), Quer(2002), Vallduvi(1993)은 ‘양화사 인상(quantifier fronting)’이라고 불렀고, Gallego(2007)은 ‘부드러운 초점화(mild focalization)’이라고 불렀다. Leonetti & Escandell-Vidal(2008)은 이를 진성 초점 인상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위에 있다. 즉, 진위 초점 인상 구문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갖는다.

(16) a. Algo has visto. → {Sí/ seguro} que has visto algo.

b. Lo mismo creo yo. → Es cierto que yo creo lo mismo.

(Leonetti & Escandell-Vidal 2008: 179)

(16)에서 보듯이 인상된 요소인 ‘algo’, ‘lo mismo’ 자체가 문장의 나머지
지와 분리되어 초점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인 문장 전체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가 초점이 되어 그 명제
가 진실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의미 효과를 야기하는 것이다.¹⁵⁾

3.2. 반복(repetition)의 전략

담화상의 의미효과를 위해 문장 요소를 반복하는 담화 전략으로 술어
반복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17)과 같이 문장 내의 동사 술어를
문두에서 반복하여 발화하는 구문이 가능하다.

(17) a. *Conducir*, Juan *condujo* un camión.

b. *Leer*, Juan *ha leído* el libro.

c. *Perder*, Juan *perdió* la cartera.

15)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그 의미 효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i) A: ¿Encontrarás a alguien?

B: (a) A alguien encontraré, (estoy seguro).

(b) #Encontraré a alguien.

B의 대답으로 (a)는 ‘encontrar a alguien’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과 이를 강조하여 다른 부정적인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의미 효과를 준다. 그러나 (b)는 문법적인 문장이기는 하지만 A의 질문에 대한 경제적 담화 전략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Sí’라는 대답으로 충분하며 (b)는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장이다.

d. *Leer el libro, Juan lo ha leído.*

(Vicente 2007: 62, 63)

스페인어는 문장 내에 도출된 동사 술어가 동사원형의 형태로 문두에서 다시 반복 도출되는 구조를 통해 정보 구조의 의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7)에서 시제와 인칭 변화된 동사로 어휘적 의미를 지닌 동사 술어 ‘condujo’, ‘leído’, ‘perdió’는 문장 내에서 도출되고, 이 동사를 문두에서 동사 원형 ‘conducir’, ‘leer’, ‘perder’로 반복하는 현상이다. 동사는 문장 내에서 어휘적 의미를 갖는 술어이어야 하며 조동사는 반복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¹⁶⁾ (17d)와 같이 문장 내 목적어가 문두로 이동하여 술어와 함께 문두로 이동하는 현상도 가능하다. 이때 문장 내에서는 해당하는 목적어의 비강세형 대명사가 동반되어 화제 구문과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술어 반복 구문은 한국어에서 ‘~하기는 ~하다’와 같은 구조와 유사하다. 용언의 어간 및 특정한 선어말어미가 문장 내에서 두 번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한국어와 같이 술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¹⁷⁾¹⁸⁾ 이러한 동사의 문두에서의 반복 현상은

16) 조동사는 문두 이동의 대상이 아니다. 다음의 예가 이를 보여준다.

- (i) a. Jugar, Juan suele jugar al fútbol los domingos.
- b.*Soler, Juan suele jugar al fútbol los domingos.
- c.*Ser, la revista ha sido leída.

(Vicente 2007: 7, 63)

17) 영어에서는 이러한 술어 반복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Cozier(2006)에 따르면 트리니다드 영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다음 (i)과 같이 조사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표준 영어에서는 술어 인상으로 반복하는 현상이 없다.

- (i) a. Is WALK (that) Tim did walk.
- b. Is still SLEEP he sleeping.
- c. Is briefly TOUCH he did touch upon that matter.
- d. Is probably WALK he go walk.

(Cozier 2006: 658, 666, 667)

그러나 이러한 술어 인상 현상은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헝가리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히브리어 등의 언어에서 광범위하게 조사된다.

한국어의 다음과 같은 의미 해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18) a. 읽기는 후안이 그 책을 읽었다.
- b. 후안이 읽기는 그 책을 읽었다.
- c. 책을 읽기는 후안이 그 책을 읽었다.
- d. 읽기는, 후안이 정말로 그 책을 읽었다.(안 읽은 것은 아니야.)
- e. 읽기는, 후안이 그 책을 읽었다. (그런데 그 책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18)에서 보듯이 술어의 문두 이동은 (18a-c)와 같은 화제 구문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18d)와 같이 문장의 내용이 진실임을 강조하는 진성 초점 구문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18e)와 같은 대조적 초점으로 해석되어 다른 대조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¹⁹⁾ 영어의 경우라면, (18)과 같은 구문을 만들기 위해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다.

- (19) a. As for reading, he has read the book.
- b. Peter DID (in fact) read the book.
- c. Peter DID read the book, but he forgot to take it.

18) 영어는 술어 반복 구문은 없으나 동사구 전치(VP-fronting) 구문은 가능하다.

- (i) a. Criticize himself John never will.
- b. Arrive late, Peter would not.

(Haegeman & Guéron 1999: 555; López 2010: 208)

술부가 문두로 이동하는 (i)과 같은 현상은 문장 내에 동일한 술어를 반복하는 (17)의 현상과는 다르다. (i)은 동사와 그 목적어를 전치하고 조동사는 문장 내에 남겨놓는 현상이다. 이러한 동사구 전치는 화제 구문에 해당한다.

19) 영어의 의미 없는 형식 동사(dummy verb) 'do'삽입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는 '하-'동사를 삽입할 수도 있다. 이는 동일한 동사의 반복 현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사구 전치 구문에 해당한다.

- (i) a. 철수가 맥주를 마시기는 했다.
- b. 존이 그 책을 읽기는 했다.

(19a)와 같이 영어는 화제의 기능을 위해서 ‘as for’와 같은 표현을 문두에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에 관해서는’이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그리고 (19b, c)에서 초점의 기능을 형식동사 ‘do’의 삽입을 통해 이 동사에 강세를 주어 표현하게 된다. 이로써 문장의 내용이 진실임을 강조하거나 대조적인 다른 문장을 첨가하면서 대조적 초점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영어에는 스페인어의 술부 반복 현상과 동일한 구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3.3. 강조의 극성(emphatic polarity) 어휘의 사용

다음은 문장의 내용에 대한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어휘 사용의 용법이다. 한국어로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20) a. 철수가 밥을 먹은 것은 {맞다/사실이다}.

b. 철수가 (안 먹기는 웬걸) 정말로 밥을 먹었다.

(20)과 같은 의미로 문장의 긍정적 사실을 강조해 표현하고자 할 때 스페인어는 다음과 같은 강조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1) a. *Sí* ha comido Pepito.

b. *Sí que* ha comido Pepito.

c. *Bien* ha comido Pepito.

d. *Bien que* ha comido Pepito.

위의 예문에서 ‘sí’와 ‘bien’은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어휘들이 강조의 극성을 나타낸다고

본다.²⁰⁾ 영어의 경우는 ‘do’ 동사 삽입으로 ‘Pepito DID eat pasta.’로 표현하거나 강세가 주어진 조동사를 사용하여 ‘Pepito HAS eaten pasta.’로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극어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어는 ‘sí’나 ‘bien’과 같은 극어의 역할을 하는 어휘가 존재한다. 이때 두 어휘의 사용이 의미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 ‘sí’의 경우는 ‘Pepito no ha comido.’라는 부정적 발화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고 사실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20a)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bien’의 경우는 한국어의 (20b)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된다. 내포된 내용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어휘이다. 즉, ‘(안 먹기는) 정말로 먹었다.’라는 강조의 의미로 사용된다.²¹⁾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담화의 상황에서 두 표현은 그 사용에 있어 서로 구별된다.

(22) a. Pepito está muy delgado.

b. Pepito detesta la cocina italiana.

20) 극성(polarity)은 긍정(affirmative)과 부정(negative)의 구별을 의미한다. 부정 극어는 스페인어의 ‘nada, nadie, nunca, ninguno’, 영어의 ‘any, yet, a bit’ 등이 있으며, 한국어의 ‘더 이상, 그렇게, 아무도, 아무 + 명사 + 도’ 등이 있다.

21) 종속절을 이끄는 ‘que’가 사용된 (21b), (21d)는 문장의 내용이 진실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que’가 없는 (21a), (21c)는 문장에서 나타내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역할만 한다. 따라서 ‘sí que’가 사용되는 구문에서는 ‘que’ 이하에 부정어가 사용된 부정문이어도 문장 전체를 긍정하는 역할이므로 정문이지만, ‘sí’만 사용된 구문에서는 긍정의 사건을 강조하는 역할이므로 부정문을 ‘sí’로 강조하는 것은 비문이 될 것이다.

(i) a. Pepito sí que no come pasta.

b. Hoy sí que no hace frío.

(ii) a.*Pepito sí no come pasta.

b.*Hoy sí no hace frío.

(Hernanz 2006: 127)

(ia)는 ‘Pepito가 파스타를 먹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의미가 가능하지만

(iia)는 같은 문장에서 ‘sí’와 ‘no’가 함께 사용되는 것은 비문이 된다.

c. *Bien* come pasta Pepito.

d. #*Sí* come pasta Pepito.

(Hernanz 2006: 112)

(22)에서 제시된 상황에서는 ‘Pepito가 이태리 음식을 싫어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데 Pepito가 파스타를 안 먹기는 웬걸, 파스타를 정말로 먹는다’로 해석되는 (22c)가 담화에 맞는 표현이 된다. (22d)와 같이 ‘먹은 것이 맞다’라는 의미만으로는 (22b)와 담화상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태리 음식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파스타를 안 먹을 것이라는 전제를 뒤집는 표현으로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bien’이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조의 극성 어휘 표현에 대해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21)의 문장들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21c, d)와 같이 ‘bien’이 사용된 구문은 그 해석에 있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21c, d)를 ‘Pepito가 잘 먹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었으며, (21c)와 같은 경우에는 ‘Bien’을 주어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상당수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bien’이라는 어휘를 부사 ‘잘, 좋게’의 의미로만 알고 있고, 그 외의 용법으로 이러한 담화상의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담화 관련 요소들의 구조적 접근

앞서 3장에서 담화 관련 의미효과를 야기하는 스페인어의 다양한 구조적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통사적 구조에 의거하여 문장 내에서의 정해진 위치에서 발화됨으로서 화제, 초점, 강조의 의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별히 스페인어는 단순한

강세의 부여로 담화상의 의미 효과를 나타내기 보다는 좌향 이동을 통한 어순의 변화나 반복, 극성 어휘의 사용 등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담화 관련 의미 효과를 포착하는 언어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통사적 현상에 대해 본고에서는 구조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일관된 설명력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도출의 위치를 이해함으로써 정보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Rizzi(1997)가 제안한 좌향 외곽 구조(left periphery construction)를 통해 정보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의 구조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²²⁾ Rizzi(1997)가 제안하는 구조는 쉽게 말하자면, ‘주어-동사-목적어’의 어순으로 도출되는 일반적인 문장의 왼쪽 가장자리에 정보 구조를 위한 구조적 범주가 설정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3) ForceP> TopP> FocP> FinP> TP> VP²³⁾

(23)의 구조는 이러한 요소들의 위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TP는 시제절을 나타낸다. 이 시제절의 상위로 문장의 종류(clausal type)를 결정하는 범주 ForceP와 문장의 정형성(finiteness)을 표시하는 기능범주 FinP로 크게 분리되고 그 사이에 담화상의 의미 효과를 나타내는 화제와 초점의 범주인 TopP, FocP가 각각 설정된다. 즉, 문장의 어순은 주어-동사의 시제절 TP보다 앞서서 왼쪽에 화제와 초점 등의 요소가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화제는 초점보다 앞서고 초점은 시제절의 동사와 가깝게 위치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를 바탕으로 앞서 논의된 화제와 초점 구문을 생각해 보자. 편의상 앞서 언급된 예문을 (24)로 제시하였다.

22) 교육적 관점에서 통사적 범주의 위계를 소개하고 어순의 차원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자세한 도출 과정을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23) ForceP=Force Phrase, TopP=Topic Phrase, FocP=Focus Phrase, FinP=Finite Phrase, TP=Temporal Phrase, VP=Verbal Phrase

- (24) a. A Juan, UNA BECA le han concedido. (=12e)
 b. A María, ¿cuándo la invitarás? (=13a)
 c. ¡Cómo, a mi hermano, lo ha ayudado! (=14c)

화제와 초점은 시제절 내부에 있던 문장 요소가 상위의 해당 범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때 화제와 초점은 (24a)와 같이 한 문장에서 위치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한 문장 내에 함께 나올 수 있으며 그 위치는 화제가 초점을 앞서는 어순이 된다. 그리고 스페인어의 경우는 주어는 후치 주어로서 TP보다 하위 범주에 남아 있고 동사가 시제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TP범주로 이동하였다고 보아 화제, 초점 구문에서 항상 동사-주어로 도치된 어순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wh-의문사는 초점 요소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른 초점 요소와 한 문장에서 함께 나올 수 없는 것이며, (24b)에서 보듯이 의문문에서 화제의 요소는 초점 요소인 wh-의문사의 앞에서 발화되는 것이다. 한편, wh-감탄사는 초점의 요소이면서 문장의 성격이 감탄문임을 나타내기 위해 ForceP범주까지 다시 이동하는 요소로 본다. 따라서 (24c)와 같이 감탄문에서는 화제의 요소가 wh-감탄사의 뒤에서 발화되는 것이다. 즉, 초점의 요소는 FocP의 범주에서 발화되고, 화제의 요소는 TopP의 범주에서 발화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강조의 극성 어휘 ‘bien’, ‘sí’도 wh-의문사와 유사하게 FocP의 범주에서 발화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²⁴⁾ 이와 같이 정보 구조의 어순과 그 의미는 구조적으로 문장의 좌향 외곽 영역을 세분화하여 시제절의 상위 범주에서 정해진 도출의 위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사적 현상임을 살펴해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 구조의 요소들이 규칙 속에서 발화되어 담화상의 의미 효과가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인식시킴으로

24) [_{ForceP} [_{FocP} bien_i / sí_i [_{Focus} ha llovido] [_{PolP} t_i [_{t_v} hoy]]]]의 구조로 도출된다. ‘bien (sí) que’는 이어지는 이동으로 ForceP에서 발화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통사적 이동의 과정은 Hernanz(2007)을 참고할 수 있다.

써 보다 다양한 문장 구조를 언어 사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문장 구조의 사용이 단순히 문장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화상의 의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은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언어 교육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스페인어에서 담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적 변화의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어순의 변화를 통한 정보 구조의 의미 효과, 반복을 통한 담화상의 효과, 강조의 극어 사용 등과 같은 현상들은 스페인어가 다른 언어보다 자유로운 어순 구조를 바탕으로 이동을 통한 통사적 작용을 통해 정보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담화상의 의미효과가 단순히 음성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언어 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구조적 변형을 통해 정해진 도출의 위치와 위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스페인어의 특징적인 현상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스페인어의 정보 구조의 유형과 의미 효과를 한국어나 영어와 비교하면서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페인어 문법 교육의 차원에서 학습자들에게 정보구조에 대한 항목을 도입하여 교육함으로써 학습 초기부터 다양한 구조의 문장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분명 학습자들의 언어능력을 보다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담화를 구성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특징적인 현상들을 중심으로 좌향 외곽 구조의 적용을 통해 구조적 규칙성을 살펴보았고, 이를 문법과 상호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Bachman, L.(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UP.
- Borrego, J., Asensio, J. G. & Prieto, E.(1989), *El subjuntivo*, Tercera edición, Madrid: Sociedad General Española de Librería, S.A.
- Bosque, I. & Gutiérrez-Rexach, J.(2009), *Fundamentos de Sintaxis Formal*, Madrid: Ediciones Akal.
- Canale, M.(1983),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ommunicative language pedagogy”, in J. Richard & R. Smith(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London: Longman, 2-27.
- Casielles, E.(2004), *The Syntax-Information Structure Interface: Evidence from Spanish and English*, New York: Routledge.
- Consejo de Europa(2002), *Marco común europeo de referencia para las lengua: aprendizaje, enseñanza, evaluación*, Madrid: Instituto Cervantes-Ministerio de Educación Cultura y Deporte, Anaya.
- Cozier, F. K.(2006), “The co-occurrence of predicate clefting and wh-questions in Trinidad Dialectal Engl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4, 655-688.
- Gallego, Á.(2007), *Phase Theory and Parametric Variation*, Doctoral dissertation, UAB.
- Hernanz, M. L.(2006), “Emphatic polarity and C in Spanish”, in L. Brugè(ed.) *Studies in Spanish Syntax*, Venècia: Libreria Editrice Cafoscarina, 105-150.
- _____ (2007), “From polarity to modality: Some (a)symmetries between bien and sí in Spanish”, in O. Fernández Soriano & L. Eguren(eds.), *Coreference, Modality and Focus*, Amsterdam: John Benjamins, 133-170.
- Haegeman, L. & Guéron, J.(1999), *English Grammar*,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Hernanz, M. L. & Brucart, J. M.(1987), *La sintaxis*, Barcelona: Crítica.
- Leonetti, M. & Escandell-Vidal, V. (2008), “Fronting and Verum Focus in Spanish”, in A. Dufter & D. Jacob(eds.), *Focus and Background in Romance Languages*, Amsterdam: John Benjamins, 155-204.
- López, L.(2000), “Ellipsis an Discourse-linking”, *Lingua*, 110, 183-213.
- Millares, S. & Centellas, A.(2009), *Método de español para extranjeros*, Nueva edición, Madrid: Edinumen.

- Quer, J.(2002), “Edging Quantifiers. On QP Fronting in Western Romance”, in C. Beyssade et al.(eds.), *Romance Languages and Linguistic Theory 2000*, Amsterdam: John Benjamins, 253-270.
- Rizzi, L.(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 Haegeman(ed.) *Elements of Grammar*, Dordrecht: Kluwer, 281-337.
- Vallduví, E.(1993), “A Preverbal Landing Site for Quantificational Operators”, *Catala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 319-343.
- Vicente, L.(2007), *The syntax of heads and phrases: A study of verb (phrase) front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eiden, LOT, Utrecht.
- Zagona, K.(2002), *The Syntax of Span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Zubizarreta, M. L.(1998), *Prosody, Focus and Word Order*, Cambridge: The MIT Press.

유은정(You Eunjung)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136-834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19-295

전화번호: 011-9758-6600

전자우편: patricia5@hanmail.net

투고일자: 2012. 4. 1

심사(수정)일자: 2012. 6. 7

게재결정: 2012. 6. 8